직장도반 절에서 함께 공부

도심 직장인 수행도량 잇달아 개설

보 림 사 금강경독송·1080배 정진
광 륵 사 실직자에 기도방 제공
한길법당 직능별 법회·봉사활동

직장인을 위한 수행도량이 늘고 있다. 평촌 보림사, 남양주 한길법당, 광주 광륵사등 이들 도량들은 IMF 시대 직장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평촌신도시 보림사(주지 허운) 시민선방에는 매주 토요일 시민선방선우회 회원 90여명이 좌선모임을 갖고 있다. 삭막한 도시환경을 신선한 마음환경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창립된 시선회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와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좌선정진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좌선시간은 참선이야기 조신 기공 단전호흡 순으로 이어된다. 또 매월 첫째 일요일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안산 화림선원에서 금강경 독송과 함께 1천80배 정근 행선을 통해 좌선과 기도를 병행하기도 한다.

회원들은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에 '일일참선' 모임을 갖는 등 생활속의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시선회 김의식(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회장은 "좌선을 생활화하다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0343) 80-0256

광주 광륵사(주지법사 능인)는 직장인이나 실직자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도량으로 개방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담은 물론 좌선을 지도하여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일깨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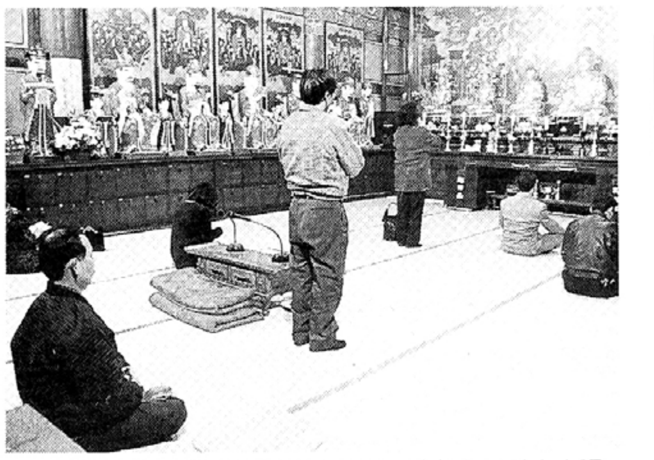
또 빈 방사를 기도처로 제공,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독송을 통한 시련 극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장경 약사경을 10만권 간행하여 직장인이나 실업자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보내줘 우울한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062)222-7801

남양주 한길법당(주지법사 유동호)은 '생활인의 불교도량'을 표방하고 지난해 초 개원했다. 퇴계원 광진빌딩에 60평 규모로 문을 연 한길법당은 일승보살회, 한길벗, 퇴계원 고 불교반, 여설회, 에카야나, 슈라마나 등 다양한 직장·직능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한길법당은 고익진선생이 엮은 '불교근본경전'을 공부하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

직장인들로 구성된 일승보살회(회장 정하경)는 매월 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해 법회를 갖고 있다.

남양주지역 교사불자들의 모임인 여설회는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 7시, 한길청년회는 둘째 일요일 오후 2시, 일반직장인들의 모임인 에카야나법회는 첫번째 일요일 오후4시에 열린다. 법회 후 봉사활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길법당은 합동법회도 연1회 실시하고 있다. (0346)574-6160

김원우 기자


◇직장인들과 실업자들이 인근 사찰을 찾아 좌선과 기도로 삶의 지혜를 찾고 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유품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백용성스님 유물 유품 전시회 개막식이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대각사조실 도문스님, 동국대교수 보광스님, 중앙대 박범훈교수, 독립기념관 박유철관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독립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거행됐다.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용성스님의 사리, 친필서한, 3.1 독립선언서 등 총 50여점의 유품이 전시된다.

제2회 만해상 시상식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주최하는 제2회 만해상 시상식이 2월28일 세종문화회관 대연회장에서 성료됐다.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오현 신흥사회주, 이수성 前국무총리, 조영식 경희학원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이사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만해시문학상은 고은시인, 만해평화사상은 김순권박사, 만해포교상은 성일스님(신흥사 주지)이 각각 수상했다.

탐방 경주불교회

"원효·이차돈성사 포교정신 이어"

거사회원 60명…내달 법당 개원
시민강좌·불우노인돕기 추진

◇경주불교회 회원들이 지난 여름 송광사에서 수련대회를 갖고 신행을 다졌다.

"신라시대 불교를 처음으로 공인되도록 한 이차돈성사와 불교대중화를 위해 헌신한 원효스님의 정신을 이어 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91년 9월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실천하자'며 경주불교회(회장 이수언, 천일라사 대표)를 창립한 회원들의 마음은 요즘 어느때 보다도 든든하다.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체 법당 '경주불교감로원'이 오는 4월 개원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경주의 번화가인 황오동의 금싸라기땅에 자리를 잡았다.

경주불교감로원은 회원들이 목탁과 염불소리로 혼탁한 저자거리를 맑게 정화하고 인근 상인들을 부처님의 품안으로 끌어들이는 감로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회비 5백만원과 불사금 1천만원등 1천5백만원을 들여 최근 빌딩3층에 20여평의 공간을 마련했다. 빠른시일내 관음보살좌상과 후불탱화를 봉안하여 여법한 법당으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법당이 마련되는 올해부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리강좌와 문화강좌 실시와 무의탁 독거노인돕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주불교회 회원들은 대불청 경주지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경주불교청년회를 만들어 활약하던 알짜배기 불자들이다. 특히 조계종 포교사이자 대한불청 경주지회장을 10여년간 맡았던 이수언회장의 역할이 컸다. 현재 회원수는 60여명으로 개인사업자, 공무원, 정당인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거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경주불교회는 매월 7일 한차례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년2회 성지순례 및 동하계 수련법회를 갖는다.

이수언회장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느때보다 열심히 참회정진해야 할때"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바탕하여 지역불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561)772-7214

대구=이윤호 기자

경남 교직원불자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인 경남교직원불자회 창립식이 1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1백2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창립식에서 초대회장 신동영(구암여중 교장)씨는 인사말을 통해 "사섭법 육바라밀 팔정도 사무량심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살정신을 구현하여 교직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직원불자회는 앞으로 △교직원불자의 인격도야와 친목 △전통문화 애호활동 △청소년 교화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조계종 마포 행화어린이집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위탁받은 마포행화어린이집(원장 임아화)이 3일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일화스님, 마포포교원 이흥세원장, 박명환 국회의원(한나라당), 노승환 마포구청장 등 지역주민·불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위탁운영자인 이흥세법사는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천불교대학 제1회 졸업식

제천불교대학(학장 원명스님)은 2월25일 제1회 졸업식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학장 원명스님은 83명의 1기 졸업생들에게 "IMF의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식에서는 이화자씨(제천시 중앙동) 등 13명에게 각 2백60만원이 전달됐다.

우리 모임에선

직지사 운전불자회 창립

직지사(회주 녹원)는 26일 오전10시 설법전에서 운전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운전불자회 창립은 김천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불교신행을 통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취지로 김천시 관내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전종사자 50여명이 가입했다. 이날 법회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장단 선출과 회칙심의가 있으며 운전불자회 로고를 택시에 부착하는 의식이 치뤄진다.

법조인불자회 보문사 순례

법조인불자회(회장 김홍근변호사)는 21일 강화도 보문사로 춘계명찰 순례를 떠난다. 법조불자들의 십신다지기를 발원하며 열리는 이날 명찰 순례법회에서는 보문사주지 원종스님이 법문한다. 출발은 토요일 서초동 정곡빌딩 서관앞 8시. (02)581-5051

유불동 소년가장과 결연

유니텔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1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안심사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정회원 준회원관리체제 확립 △게시판 메뉴 통폐합 △회원들과 고아·소년소녀가장들이 1:1로 결연하는 봉사 활동체제 확립 △제주·강원지역모임 창립 등을 확정했다.

교사불자련 '신심명' 강의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0일 오후6시 30분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타스님이 '신심명'을 주제로 법문한다. 이와함께 교사불자연합회는 교사들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02)552-2517

우리는선우 철야법회 개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는 2월28일 선우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 2억1천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철야정진법회 개설과 중·고등학생회를 창립키로 했다.

심우회 둥지마을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22일 대부도 둥지마을(원장 법현스님)을 방문하여 위문법회와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심우회는 이날 둥지마을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마련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02) 529-3861

서울구치소 재소자 위문

서울구치소 불교분과위원회(회장 지원스님)는 2월 27일 구치소 대강당에서 재소자들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불자가수회의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소유 보살경-

1장의 CD에 25시간 분량의 부처님의 무량한 진리를 담았습니다! (세계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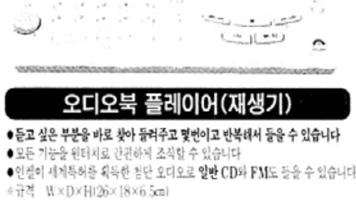
인켈 오디오북 「불경대전집」

● 수록내용:천수경, 반야심경, 고왕경, 금강경, 화엄경, 산왕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지장경, 석가모니불 정근, 관음정진,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신심명, 보현행원품,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성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회심곡, 명상의 말씀 등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이 수록되었습니다.

● 듣고 싶은 경전 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GOOD DESIGN 통상산업부 선정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오디오북 플레이어(재생기)

● 듣고 싶은 부분을 바로 찾아 들려주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인켈이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 오디오로 일반 CD와 FM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규격 W×D×H(26×18×6.5cm)

특별할인판매 40% 할인

불경대전집 (25시간 CD1매) ₩70,000 +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듣는 드라마 삼국지로 제작 ₩70,000 + CAB-100 ₩345,000

= ₩485,000 → 특별 할인가 ₩290,000

「불경대전집」과 「삼국지」는 인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이터 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오디오북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 오디오북 소프트웨어(CD)는 TOEIC 생활영어 어린이영어 소설 시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별도의 어답터를 사용하시야 합니다 (별도판매)

구입 문의
■판매원 : 아울렛 유통(서울 용산)
■문의전화:(02)3274-119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은행계좌 : *국민은행 : 015-21-0955-947 *농협 : 011-01-430541 *조흥은행 : 952-04-132815 *예금주 :이 종 주

inkel